

I. 찬양(Praise): “나를 지으신 주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II. 기도(Prayer): “부모중 한 분이 대표로”

III. 성경(Bible): “시편 139 편 13-16(Psalm 139:13-16)”

IV. 적용과 나눔(Application & Sharing)

본문: 시편 139 편 13-16

이산돌 목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 건강한 육의 삶을 그리고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영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에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며 그것은 참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육으로만의 태어남이 아니라 육과 영이 공존함을 말하면서 육의 태어남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 날 때는 자연계에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요 3:3)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게 됩니다.

1) 육으로서 자라는 삶 (자녀와 아이들에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40,51)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은 시간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시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라셨습니다. 육체의 건강함은 너무나 귀합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도 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2) 거듭남까지 (성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거듭남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그분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로마서 8:29). 니고데모는 착실한 사람이었고 육으로 태어나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자랐습니다. 어찌보면 앞부분에 언급한 육으로서 자라는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고 반면에 삶이 허점투성이고 잦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기묘하고 경외로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단지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즉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육으로 자라고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과 나눔

1. 예수님이 자랐을때의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있을까요?
2. 거듭나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ssage: Psalm 139:13-16

Pastor Sandol Lee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Being born into this world is a precious blessing. Even scientifically, being born into this world does not have a high probability. Hence it can be said that being born itself is a miracle. However, it doesn't end there — we must not forget that our being born was brought about in the midst of God's purpose. So then how should we live? Born in a physical body, we fully realize the true meaning of God's creation of us here on earth only through living a spiritual life brought about by living a healthy physical life.

David says in his poetry that being born in the human body on this earth is so wondrous and that it is a true grace of God. And what's more, beyond being born in the flesh, the coexistence of the body and the spirit is greater than simply being born in the flesh. He says that's because his soul knows well. The Christian faith teaches that everyone must be born twice. When you are first born, you are born into the natural world, but, as Jesus Himself said, by being "born again" (John 3:3), you are born into the kingdom of God and enter a new spiritual life.

1. Life in the Flesh (for our children)

"4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on him." (Luke 2:40,51).

Jesus came to earth and lived in human form. The human body changes over time. It starts as a child and continues to grow into old age. In all those changes, childhood is of such importance. Jesus also grew physically. And physical health is so precious. At the same time, the growth in our wisdom is just as important. Furthermore, the growth must be accompanied by God's grace and the love of the many people surrounding the children.

2. Until the Rebirth (for adults)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To be born again is not to become a better person, but to become a new person. The regenerative power of God enters our lives, and then slowly but surely transforms us into the image of His Son (Romans 8:29). Nicodemus was a faithful man, born in the flesh, and matured into a man of faith. In a way, he is a model example of growth in the flesh. But Jesus says however well one grows in the flesh, one must be born again. On the other hand, one can be born again even though life is full of pitfalls and frequent failures.

It is by the grace of a strange and awe-inspiring God that we are born on this earth. But it does not end with simply being born, but I hope that we can grow physically and be born again in the Spirit to live the purpose that God gave us on this earth, namely, to seek the Lord's kingdom and righteousness.

Applications and Sharing

Sharing

1. What can adults do to help our children grow up as Jesus did as a child?
2. What is the purpose of being born again and what must we do to be born again?



생일 감사예배

Birthday Thanks, Family Worship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생일 감사예배”



임마누엘장로교회

가정예배팀